

#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사용자 조사 분석

노상재

디지털 기기 관련 통합 웹 홈페이지 제작에 앞서 잠재 사용자층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퍼소나 작성

## 1. 사용자 유형 선발

성명	김 동 땅
연령대	30대
성별	남성
선호도	재미/편안함/디자인적 요소
숙련도	얼리어답터, 다양한 사무업무 지식
태도 및 특성	잡은 야근으로 사회생활에 찌든 사람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자경험 블로그 업로드 및 웹 서핑 등으로 간간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새로운 제품, 재미가 추가된 기능 등을 항상 찾아 얼리어답터 관련 웹 서핑을 한다.
주 사용기기	스마트폰/ 태블릿PC/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워치
주요 방문 디지털 기기 사이트	디지털 기기 관련 웹, 얼리어답터 프리뷰 웹, 해외 직구 웹 등
디지털 기기 웹 외 방문 사이트	유튜브/ SNS/ 주식/ 뉴스/ 자동차 관련

## 2. 페르소나 작성

기 본 정 보
나이 : 35세 수입 : 월 350 결혼 여부 : 미혼 직업 : 사무직 가족관계 : 부모님, 남자 형제 취미 : 디지털 기기 사용, 리뷰 블로그 작성

## 행 동

- 직업 특성상 컴퓨터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SNS 서칭 및 제품 리뷰 사이트를 방문한다.
- 잦은 야근으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사회 생활을 하고부터 돈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 비싸더라도 본인에게 흥미도가 높은 제품 기기를 구매한다.
- 해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독특한 디지털 기기들도 예약구매 + 해외 직구 등을 이용하여 구매하려고 본다.
- 어떤 기기라도 재밌어 보이면 도전적으로 사서 써본다.
- 써본 제품들을 글로 작성하여 본인의 블로그에 업로드한다.

## 니즈 / 불편사항

- 본인이 블로그에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심심하다는 생각을 한다.
- 유튜브를 시작하기에는 영상 편집 촬영 등이 너무 과하고 힘들다고 생각한다.
- 작성하는 글이 조금 더 독특하고 재미 요소가 쉽게 들어갔으면 생각한다.
- 디지털 기기 제품 리뷰도 재밌게 하고 제품 또한 최신의 정보를 얻고자 한다.
- 해외 구매 사이트를 연결 해주었으면 한다.
-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메인 페이지에 산재해 있어 단순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도 사이트의 외관이 너무 단순하면 정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 가치 목표

- 메뉴 화면은 단순해야 한다.
- 디지털 기기의 최신 정보를 업로드 해주는 곳임과 동시에 템플릿을 제공하여 쉽게 독특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구매 관련 게시판을 따로 작성해준다.
- 메인 페이지의 정보를 최대한 간추려서 제공한다.

## 해결 방안

- 이중, 삼중으로 펼쳐지는 메뉴가 없도록 한다.
- 한 줄에 이미지 3개로 2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텍스트 또한 많지 않도록 작성한다.
- 우측 상단에 로그인 아이콘과 사용자 아이콘, 구매 관련 아이콘, 제품 리뷰 관련 아이콘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만들고, 스크롤을 내려도 보이게끔 하여 리뷰 및 구매 아이콘이 잘 보이도록 한다.
- 모바일 버전 또한 한 화면에 한 개에서 두 개의 이미지만 보여주며 텍스트 또한 최소화한다.
- 리뷰 작성 시 다양한 효과나 이미지를 넣은 템플릿을 제공하여 손쉽게 독특한 리뷰를 작성하게끔 한다.
- 해외 구매 및 기기 최신 정보를 이어서 접근하기 편하게 만든다.

## 맥락 시나리오

김동땅씨 35세의 사무직 회사원으로 잦은 야근에 찌들어 있는 사회인이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야근 수당으로 번 돈으로 구매하는 독특하거나 재밌는 디지털 기기들이다. 직업 특성 및 기기에 관한 관심으로 기기들을 다루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항상 최신 트렌드의 기기들을 사용하고 블로그에 작성하는 것이 야근 후하는 유일한 취미이며 관련된 웹사이트는 항상 방문하여 확인하는 편이다. 현대 작성하는 블로그는 이제 너무 획일화된 사진 텍스트 나열 방식으로 흥미도가 떨어지며, 리뷰를 영상으로 제작하자니 촬영과 편집에 부담을 느끼는 편이다. 독특하고 재밌는 최신 디지털 기기의 구매 리뷰 확인을 쉽게 하고, 본인의 리뷰 작성을 쉽고 재밌게 이펙트를 넣어서 만들어 줄 커스텀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